

경희대학교 2018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국어 시험 문제지

지 원 학 부(과) : \_\_\_\_\_ 수험번호

--	--	--	--	--	--	--	--

성 명 : \_\_\_\_\_

1. 문제지, 답안지에 지원학부(과), 수험번호, 성명을 정확히 기재(마킹)하였는지 확인한 후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은 별도로 배부된 답안지(OMR카드)에 지급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을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22]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1. 다음 설명에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계절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하지만 언어에서는 이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표현한다. 이처럼 언어는 연속적인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하는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 ① 언어의 역사성                      ② 언어의 기호성  
③ 언어의 분절성                      ④ 언어의 추상성

2. 다음 중 ㉠에 해당하는 형태가 쓰이지 않은 것은? [2점]

명사는 일반적으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가리킨다. 명사는 사용 범위에 따라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로, 자립성 여부에 따라 반드시 관형어를 필요로 하는 ㉠의존 명사와 그렇지 않은 자립 명사로 나뉜다.

- ① 그가 가져온 것은 내 선물이었다.
- ②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 ③ 신발을 신은 채로 방에 들어오지 마라.
- ④ 내 동생은 무엇이든 자기 고집대로만 한다.

3. 다음 중 ㉠, ㉡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제시된 것은? [3점]

글이 갖추어야 할 담화적 특성이 있다. (㉠)은 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모두 주제나 중심 생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은 서술된 내용들이 배열 순서나 언어적 장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 ① 통일성, 응집성                      ② 통일성, 완결성  
③ 응집성, 완결성                      ④ 완결성, 통일성

4.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2점]

- ① 가을날[가을랄]                      ② 맨입[맨닙]  
③ 곡물[공물]                            ④ 빗갈[비갈]

5. 다음 중 반의관계의 성격이 다른 것은? [2점]

- ① 남성 - 여성                      ② 살다 - 죽다  
③ 덜다 - 출다                    ④ 참 - 거짓

6.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3점]

- ① 그를 설득하는 데에 며칠이 걸렸다.
- ② 국가대표팀이 기대밖의 성적을 거두었다.
- ③ 열심히 일했으니 만큼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 ④ 내가 그 일을 처음 시작한 것은 고향에서 부터였다.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쓰인 것은? [2점]

- ① 이번 워크샵에는 전 직원이 참가하였다.
- ② 어제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9회말이었다.
- ③ 슈퍼마켓에 가서 고기와 야채를 사 왔다.
- ④ 프랑스 빠리에서 양국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8.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는 것은? [2점]

- ① 그가 이번에도 회장이 됐을까?
- ②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 ③ 요컨대 실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 ④ 상자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맞춰 보세요.

9. 다음 중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점]

화법과 작문은 개인적 의사소통 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이다.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여 언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 ① 수강 신청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담당 부서에 건의하였다.
- ② 친구의 생일을 맞아 축하 카드를 써서 선물 상자 안에 넣어 놓았다.
- ③ 국제 정치의 이슈를 다룬 신문 기사를 두고 친구들끼리 토론을 벌였다.
- ④ 한 공익광고에서 영화배우 안성민 씨가 제3세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기부를 호소하였다.

10. 밑줄 친 표현이 지시하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2점]

진수 : ㉠이거 새로 산 책이야? 재미있어 보이네.  
영호 : 응, 며칠 전에 샀어.  
진수 : ㉡이거 나 좀 보면 안 돼?  
영호 : ㉢그걸 내가 읽고 있는 거니까 넌 ㉣이거 봐.  
진수 : ㉤그걸 이미 읽은 거네. 난 ㉥이거 보고 싶을테.

- ① ㄘ, ㄙ  
② ㄌ, ㄘ, ㄨ  
③ ㄗ, ㄌ, ㄨ, ㄙ  
④ ㄗ, ㄌ, ㄘ, ㄙ

11. 다음 중 ㉠~㉣의 밑줄 친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이리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거라.  
 ㉡ 내가 만나고 싶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 진수는 우리 반에게 키가 가장 작다.  
 ㉣ 그는 경제, 정치 및 문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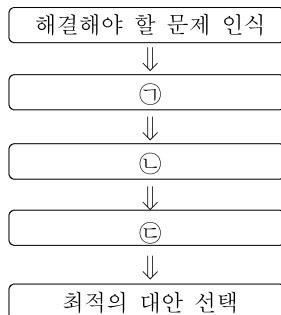
- ① ㉠의 '이리'는 방향을 가리키는 부사이다.  
 ② ㉡의 '바로'는 뒤의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③ ㉢의 '가장'은 뒤의 '작다'를 꾸미는 부사이다.  
 ④ ㉣의 '및'은 앞뒤의 문장들을 이어 주는 부사이다.

12. 다음의 '로마자 표기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로마자 표기법>  
 제2항 자음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붙임2]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l'로 적는다.

- ① 구리 : Guri                      ② 설악 : Seolak  
 ③ 울릉 : Ulleung                ④ 팔당 : Paldang

13. 다음은 '토의의 의사 결정 과정'이다.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제시된 것은? [3점]



- ① 대안 도출 - 판단 기준 설정 - 대안 분석 및 평가  
 ② 대안 분석 및 평가 - 판단 기준 설정 - 대안 도출  
 ③ 대안 분석 및 평가 - 대안 도출 - 판단 기준 설정  
 ④ 대안 도출 - 대안 분석 및 평가 - 판단 기준 설정

14. 다음 중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핵심 정보를 조직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시각 자료는 화자가 말하기를 수행하는 데 보충적인 기능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② 그림, 사진, 동영상 중심의 시각 자료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게 해준다.  
 ③ 그래프는 대상의 변화 과정이나 분포 양상을 명료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시각 자료이다.  
 ④ 담화의 목적과 상관없이 시각 자료의 출처, 사용된 단위나 용어의 개념은 밝히지 않아도 된다.

15. 다음의 ㉠, ㉡에 해당하는 문장이 알맞게 제시된 것은? [3점]

둘 또는 그 이상의 홀문장이 이어지는 방법에 따라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중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두 절은 연결어미에 의하여 이어지는데, 이때 앞절과 뒤 절이 갖는 의미 관계가 중요한 변별 기준이 된다.

- ① ㉠ :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든다.  
 ② ㉡ : 극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다.  
 ③ ㉠ : 비가 오더라도 소풍을 갈 것이다.  
 ④ ㉡ : 아침에 빵을 먹거나 밥을 먹는다.

16. 다음 중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사회적 공동체의 독서 활동이 갖는 장점이 아닌 것은? [2점]

- ①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다.  
 ② 같은 내용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  
 ③ 혼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④ 직접적인 대면 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이라 오해가 생길 여지가 없다.

17.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점]

진수: 민수야! 너 왜 이래? 공부에 집중해야지. 공부한다면서 뭐 하는 거야?  
 민수: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너도 공부하다 말고 스마트폰도 보고 그러잖아.

- ①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② 흑백 논리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  
 ③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져 있다.  
 ④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보이고 있다.

18. 다음 글에 사용된 내용 조직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3점]

허난설헌은 1563년에 강릉에서 출생했다. 이달에게 시를 배워 8세에 시를 지어 천재적 능력을 발휘하였다. 15세인 1577년에 김성립과 결혼하였으나 어린 딸과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시로 달래었다. 1589년에 27세로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사후에 시집 《난설헌집》이 명나라에서 간행되어 극찬을 받았고, 1711년에 일본에서도 발간되어 애송되었다.

- ① 병렬적 내용 조직  
 ② 순행적 내용 조직  
 ③ 공간 이동에 따른 내용 조직  
 ④ 원인과 결과에 따른 내용 조직

19. 다음 ㉠, ㉡에 들어갈 것이 순서대로 제시된 것은? [3점]

비판적 독해는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따져서 판단하며 읽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독해에는 글에 제시된 내용이 옳은가에 대한 ( ㉠ ), 글의 내용, 화제 등을 다루는 방법이 균형 있게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 ㉡ ) 등을 판단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① 공정성, 적합성                      ② 정확성, 타당성  
 ③ 적절성, 정확성                      ④ 타당성, 공정성

## 20. 다음 중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2점]

이처럼 조선 전기의 회화는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사고에 기반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사대부들은 회화의 궁극적 가치가 대상의 참모습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 ①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보았다.  
 ② 양국은 무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다.  
 ③ 김 교수는 박 교수의 주장을 비현실적이라고 보았다.  
 ④ 부모님이 휴가를 가셔서 나 혼자 며칠간 집을 보았다.

## 21. 문학 작품의 창작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문학 작품은 계획하기, 표현하기, 고쳐 쓰기의 순서로 창작하는 경우가 많다.  
 ② 자신의 삶보다 타인의 삶을 소재로 창작한 문학 작품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③ 머릿속에 떠올린 다양한 내용들을 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정한 질서를 따라 구조화하는 것이 좋다.  
 ④ 소설의 배경은 소설의 분위기를 잘 살리면서 사건 전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설정한다.

## 22. 다음은 수필의 특성에 관한 글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모두 적절한 것은? [3점]

수필의 재료는 생활 경험, 자연 관찰, 또는 인간성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 무엇이나 다 좋을 것이다. 쓰는 이의 독특한 ( ㉠ )와/그때의 무드에 따라 ‘누에의 입에서 나오는 액(液)이 고치를 만들 듯이’ 수필은 쓰이는 것이다. 수필은 플롯이나 클라이맥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수필의 행로(行路)이다. 그러나 차를 마시는 거와 같은 이 문학은 그 방향(芳香)을 갖지 아니할 때에는 수돗물같이 무미(無味)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수필은 ( ㉡ )이다. 소설가나 극작가는 때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져 보아야 된다. 셰익스피어는 햄릿도 되고 폴로니아스 노릇도 한다. 그러나 수필가 램은 언제나 찰스 램이면 되는 것이다. 수필은 그 쓰는 사람을 가장 솔직히 나타내는 문학 형식이다. 그러므로 수필은 독자에게 친밀감을 주며, 친구에게는 받은 편지와도 같은 것이다. -피천득, ‘수필’에서

( ㉠ )                      ( ㉡ )

- ① 글감                      대화  
 ② 제재                      이야기  
 ③ 문체                      상상  
 ④ 개성                      독백

## [23-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이 차려졌다, 아들이  
 크림의 고요한 흰색과 함께,  
 그리고 네 벽에는 질그릇들이  
 푸른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다.  
 여기 소금이 있고, 기름은 여기  
 가운데는 거의 말을 하고 있는 빵.  
 빵의 금빛보다 더 아름다운 금빛은  
 대나무나 과일엔 없으니,

㉠그 밀 냄새와 오븐은  
 끝없는 기쁨을 준다.

굳은 손가락과 부드러운 손바닥으로  
 우리는 더불어 빵을 쪼갬다, 귀여운 애야.

㉡검은 땅이 흰 꽃을 피워 내는 걸  
 네가 놀라운 눈으로 보고 있는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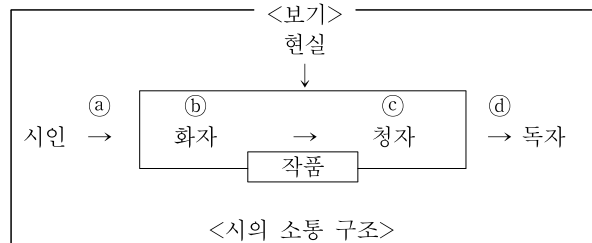
빵을 가지러 가는 네 손을 낮추어라.  
 네 엄마가 자기의 손을 낮추듯이.  
 아들아, ㉢밀은 공기로 된 것이고  
 햇빛과 갠이로 된 것이란다.

그러나 이 빵, ‘신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이 빵은  
 모든 식탁에 놓여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그걸 갖지 못했으면  
 아들아, 그걸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  
 부끄러운 손으로  
 너는 그걸 가져가지 않는 게 좋다.

아들아, 굶주림은 그 찌푸린 얼굴로  
 타작하지 않은 밀을 휩싸며 회오리친다.  
 그들은 찾지만, 서로 발견하지 못한다.

빵과 굶사들이 굶주림은,  
 그러니 그가 지금 들어오기만 하면 발견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 빵을 내일까지 먹지 말고 놔둘 일이다.  
 케추언 인디언은 닫는 법이 없는  
 문을 타오르는 불로 표시하고,  
 그리고 굶주림이 몸과 영혼이 잠들 때까지  
 먹는 걸 볼 일이다.

## 23. 아래 &lt;보기&gt;는 시의 일반적인 소통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위의 시를 &lt;보기&gt;의 각 요소와 관련지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시인이 작품 속에 직접 화자로 참여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② ㉡ - 화자는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③ ㉢ - ‘아들’을 구체적인 청자로 한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④ ㉣ - 타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의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를 제공한다.

## 24. ㉠~㉣의 시어에 관한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일상의 식탁에서 맞이하는 ‘빵’의 소중함을 드러낸다.  
 ② ㉡ - 빵을 쪼갤 때의 광경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③ ㉢ - 빵은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어우러져야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④ ㉣ - 가족의 미래를 위해 현실의 고통을 인내하자는 뜻이다.



다음 날 아침 동순은 몇 번 사용해 보지도 않은 새 예초기를 들고 처갓집 선산으로 향했다. (중략) 과수원과 연결된 선산 출입로는 어린 아카시아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웬만한 풀도 키 높이로 자라 있었다. 일반 예초기 날로는 베기가 어려울 듯하여 동순은 미리 준비해 온 체인 톱으로 날을 갈아 끼웠다. 어떻게 예초기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풀과 나무를 베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일이 손에 익자 동순의 팔에는 힘이 붙었다. 그러나 선산은 너무 넓고 가팔랐다. 게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두 배씩은 커지는 듯해서 모두 합쳐서 수백 평은 될 묘역은 좀체 줄어들지 않았다. ㉠뉴스에서 남 이야기인 양 들어 넘겼던, 별초를 하다가 말벌에 쏘여 죽었다는 사람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났다. 장화를 신고 있긴 해도 독사가 있지 않은지, 예초기의 날이 바윗돌에 부딪혀 부러져 날아와 오금에 박혔다는 이웃 농부들의 경험담도 신경이 쓰였다. 가장 큰 적은 땀과 더위였다. 점심 때가 되어서 동순은 아래로 내려와 과수원 작업장에서 몸을 대충 씻고 도시락을 먹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수궁하게 도시락을 싸 준 아내가 고마웠다. 경상도 머스마와 전라도 가시내로 만나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그럭저럭 순탄하게 살아온 세월이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낮잠을 자고 난 뒤 동순은 다시 산소에 들러붙었다. 봉분에 들이박힌 나무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산에서 넘어 들어온 덩굴들을 잘라 낼 때는 쾌감마저 들었다. 예초기 날을 갈아 끼우고 잔디를 깎기 시작하자 일은 더욱 더더졌다. 서툴렀기 때문이다. 날에 풀이 끼어서 엔진 소리만 높아지고 곧 고장이라도 날 듯했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땀에 젖은 선글라스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럴수록 동순의 오기는 강해졌다. 미친 듯 산소 위를 헤매 다녔다. 마침내 해가 저물 무렵에야 일이 끝났다.

“언 놈이 ㉡( )카노. 앞에 있으마 귀때기라도 한 대 올리불이야 속이 시원할따.”

동순은 성취감과 함께 힘들었던 하루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며 이렇게 아내 앞에서 큰소리를 쳤다. 기다렸다는 듯 전화가 걸려 왔다. 손위 처남이었다.

㉢“아이고 동상. 아버지가 날 더운데 김 서방 고상한다고 다음에 가자고 하시는구먼. 머 한 보름쯤 있다가 가실랑가 모르겠네.”

다음 날 아침 동순이 일어나 보니 코피가 쏟아졌다. 잇몸이 아파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 치과에 갔더니 의사는 과로 탓이라면 두 달 동안 치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다던 사람들은 보름 후에도, 두 달 후에도 오지 않았다. ㉣다음 해 아카시아가 다시 자라 숲을 이룰 때까지도 오지 않았다.

## 2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보기>에서 골라 빠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기> —

- ㄱ. 인생의 순간적인 한 단면을 날카롭게 포착해서 표현하고 있다.  
 ㄴ.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진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ㄷ. 극적 반전을 통해 비극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ㄹ.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현실감과 토속적인 느낌을 준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 30. ㉠( )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처삼촌 산소 별초를 대충한다  
 ②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③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④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31. 다음 중 ㉡과 같은 내용으로 손위 처남의 전화를 받은 ‘동순’의 심리를 예측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만족감                      ② 책임감  
 ③ 허탈감                      ④ 모욕감

## 3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점]

- ① ㉢ - 본격적인 사건 전개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② ㉢ - 처가 식구들의 방문 소식에 걱정하는 동순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③ ㉣ - 별초하다가 발생한 이웃의 불행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 - 처가 식구들이 다시 방문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안도감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손님들에게 고구마를 후하게 줬다. 그래야만 손님이 많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인집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고 그대로 따른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보름쯤 지나서 ㉠주인이 나를 불렀다. 고구마가 많이 축난다는 것이다. 가마니째 달아 본 무게와 소매로 판 고구마의 무게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했다. 그러니 앞으로는 덤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내가 기록하고 있는 매상 장부를 보면 고구마는 갑절이 넘는 이윤이 나오고 있었다.

한 주일 뒤에 주인이 또 불렀다. 이번에는 고구마를 저울질할 때 요령껏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 주었다. 한 관씩 표시를 해 둔 작은 막대 저울로 고구마를 달 때, 손잡이를 잡고 새끼손가락 끝으로 약간만 고구마가 얹힌 쪽으로 누르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다음 날 혼자서 그 요령을 시험해 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커다란 속임수였다. 새끼손가락의 중간 마디로 저울대의 머리를 누르기는커녕 약간만 건드려도 3킬로그램만으로도 한 관이 되었다. 한 관은 3.75킬로그램이다. 그런데 3킬로그램만으로 한 관이 되게 속여서 파는 것이다. 나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도무지 손이 떨려서 고구마를 달 수 없었다.

그런데 주인이 또 불렀다. 왜 시킨 대로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는 시킨 대로 못 했으니 대답할 말이 없었다. 주인과 머슴 사이는 바로 이런 것이다. 나는 어느새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다지만 역시 인간 사회에는 계급이 있기 마련이다. 가난은 양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며 거짓을 강요받게 만든다. 나중에는 알았지만 주인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시켜 나에게 고구마를 사러 보낸 것이다. 그게 바로 스파이 행위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한 번씩 사람을 바꾸어 보낸 것이다. 돈의 힘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돈은 돈만 벌지 않고 악을 낳고 퍼뜨리는 악마다. 나는 그래서 그 돈에 복종했고 내 조그만 양심을 속이게 되었다.

나에게 고구마를 사러 오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이들이었다. 날고구마를 한두 관씩 사다가 찌서 파는 고구마 장수들, 한 끼니를 잇기 위해 한 관씩 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게를 속여야 했다. 고구마 두세 개씩은 속이게 되었다. 날개로 찢어 파는 아주머니는 될 수 있으면 작고 때깔이 좋은 걸 골랐다. 그렇게 작은 고구마라면 다섯 개도 속일 수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두렵고 떨리며 괴로웠지만 차츰 아무렇지 않게 되었다. 나도 악마들의 세상에 길들여진 것이다. (중략) 아무리 훌륭한 일도 정신을 잃고 맹목적으로 끌려가면 모두 악마로 둔갑해 버린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내가 고구마 파는 데만 정신을 쏟고 있는데 한번은 ㉠시골 어느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꼬깃꼬깃 접힌 돈을 꺼내더니, “학생, 아래 장날에 고구마를 사 갔는데, 글썽 정신도 없제. 돈도 안 주고 그냥 가 뿌릿잖아. 얼마나 미안한지 어서 갚아 줘야 된다. 된다 하면서도 이렇게 늦어 부러대이.” 하며 고구마 한 관 값을 내어 주는 것이었다. 세상이란 또 ㉡이렇기도 했다. 돈은 돈을 넣고 그 돈이 쌓이면 악을 낳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장날이면 고구마 가게가 무척 붐빈다. 그러면 서로가 정신을 잃고 사는 쪽도 파는 쪽도 돈을 주고받는 걸 잊을 때가 있다.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을 속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 아주머니는 고구마 한 관 값 때문에 이렇게 며칠 동안 괴로워했다니 참으로 바보스러웠다. 그까짓 거 모른 척 지나가 버려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이득이 될 텐데, 왜 이런 바보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아주 재미있는 일로 생각했다. 그래서 ㉣옆집 구멍가게 아주머니께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도 장사꾼이었다. “학생, 그럼 그 돈은 없던 거냐 마찬가지니 학생이 써 버려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얼른 마음을 가다듬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럼, 그 돈 아주머니가 맡아 주세요.” “그래, 내가 맡아 놓을게. 언제든지 쓸테가 있으면 달라고 해.” 나는 고구마 가게 주인이 가르쳐 준 요령을 따르는 것만 아니라 나대로 요령을 이용할 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만 계속했다라면 나는 커다란 장사꾼이 되어 어느 기업의 사장님 못지않은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고구마 가게에 뜻밖에도 ㉤어머니가 찾아오신 것이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있어서 고구마를 찢어 팔아 보려고 왔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께 고구마 두 관을 팔면서 하마터면 여느 사람들에게 하듯이 속일 뻔했다. 어머니를 보내 놓고 나는 그때서야 가슴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판자집 가랫방에서 혼자 자면서 거의 밤을 지새우다시피 올었다.

고구마를 팔면서 가끔 아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한번은 국민학교 시절 ㉥교장 선생님이 지나치다 나를 보셨다. 교장 선생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까지 하셨다. 전교 수석으로 졸업한 아이, 비록 시골 국민학교지만 1등을 했던 나를 몹시 아껴 주시던 것을 나도 알고 있었다. “너는 계속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한참 서서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돌아가던 것이 평생 잊히지 않는다. 결국, 나는 고구마 가게를 떠나기로 했다. 갑자기 두려워진 것이다.

33. 밑줄 친 인물 중에서 작가에게 비슷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끼리 묶은 것은? [3점]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34. 윗글의 화자가 보이는 정서나 태도와 비슷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판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 우물 속에서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윤동주, ‘자화상’)  
②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 서서 / 차라리 봄도 꽃 피진 말아라 (중략)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 해라 (이육사, ‘교목’)  
③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령 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 웅졸하게 욕을 하고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④ 구두 뒤축이 들렸다 닳을 대로 닳아서 / 뒤축과 땅 사이에 /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 한 공간이 생겼다 (중략) 가끔씩 한쪽으로 기우뚱 몸이 기운다는 건 / 내 뒤축이 허공을 딛고 있다는 얘기 / 허공을 디디며 걷고 있다는 얘기 / 이제 내가 딛는 것의 반은 땅이고 / 반은 허공이다 그 사이에 / 내 닳은 구두가 있다 (손택수, ‘길이 나를 들어 올린다’)

35. 다음 중 ㉠‘이런 것이다’와 ㉡‘이렇기도 했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제대로 찾은 것은? [2점]

<보기>

- ㄱ.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물질적 토대이다.  
ㄴ. 부의 축적에만 그치지 않고 도덕적 타락도 초래한다.  
ㄷ. 가난한 사람들이 이익보다 양심을 지키기도 했다.  
ㄹ. 부자가 양심을 지키는 경우도 있다.

- |   |   |   |
|---|---|---|
|   | ㉠ | ㉡ |
| ① | ㄴ | ㄴ |
| ② | ㄴ | ㄷ |
| ③ | ㄱ | ㄷ |
| ④ | ㄱ | ㄹ |

36. ㉤에 담겨 있는 인물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난하면서도 양심을 지키는 아주머니의 삶이 인상 깊었다.  
② 약삭빠르지 않은 시골 아주머니의 태도를 비웃고 있다.  
③ 아무도 모르는 일 때문에 며칠 동안 괴로워한 아주머니가 주체된다고 생각했다.  
④ 주인을 닮아가는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사건이었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강원도 마을에 사는 홍연은 17세의 늦깎이 초등학생이다. 새로 부임해 온 총각 선생님 강수하를 짝사랑하는 홍연은 자신의 마음을 일기장에 담아 보지만, 강수하는 동료 교사인 양은희 선생님께서 호감을 갖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팔을 살짝 꼬집은 선생님의 장난을, 자신에 대한 선생님의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한 홍연은 이에 대한 생각을 일기장에 적는다.

S# 62 홍연네 안방(밤)

홍연, ㉠일기장을 편다. 일기장 끝에 또렷이 적혀 있는 수하의 연필 메모.

“누구 팔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장난으로 그랬을 뿐이다. 아무 뜻도 없단다.”

곧 울음이라도 터질 듯한 얼굴을 하고 세차게 일기장을 덮는 홍연. 나란히 이부자리 속에 배 깔고 엎드려 어린이 잡지 ‘새벗’을 뒤적이는 남동생들 옆으로 파고 들어간다. 뒷목에서 달달달 재봉틀을 돌리던 홍연 모 의아해 돌아보면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는 홍연. 잡지를 들춰이던 ㉠홍일, 홍삼 중 하나가 방귀를 끼자 서로 킁킁댄다. 홍연, 씩씩대며 세차게 발길질해 동생들을 이불 밖으로 모두 밀어낸다. 엎어진 채 방바닥으로 떠밀려 울음을 터뜨리는 홍일, 홍삼.

**홍연 모** (손을 놓고) 아니, 저 망할 에미나이!

홍연 모 달려들자 이불을 훌랑 뒤집어쓰고 둘둘 감는 홍연 이불 위로 평평 두드려대는 홍연 모.

#### S# 63 5-1반 교실(낮)

수하가 가락을 넣어 샘본을 부르며, 부지런히 손가락을 눌러 주판알을 움직이는 아이들. 수하, 샘하는 사이사이로 홍연 쪽을 쳐다보면 홍연, 계속 찌뿌드드한 얼굴로 고개를 떨어뜨린 채 건성으로 손가락을 놀리고 앉았다. 학습장에 제각기 고개를 파묻고 산수 문제를 푸는 아이들. 그 사이를 누비며 일일이 개인 지도를 하는 수하. 먼 데를 바라보고 시무룩하게 앉았던 홍연. 수하가 다가오자 마지못해 연필을 잡고 공책을 급적거린다. 홍연의 옆에 슬쩍 다가선 수하.

수하 홍연이 너 요새 어디 아프니?

**홍연** (시선을 공책을 고정한 채 메마른 음성으로) 아무 데도 안 아파요.

멋쩍은 표정으로 홍연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수하의 귀에 홍연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려온다.

#### S# 64 수하 하숙방(저녁)

연극배우처럼 웃음을 터뜨리다, 심각한 얼굴을 했다 하며 홍연의 일기장을 계속 넘겨 읽는 수하.

**홍연(Narr.)** 나는 오늘 동생 홍삼이를 실컷 꼬집어 주었다.

#### S# 65 홍연이네 마루(낮)

마루에 퍼질러 앉아 고추장 비빔밥을 입에 퍽퍽 퍼 넣던 홍연, 동생 ㉡홍삼이가 아랫도리를 간 채 마루 끝에 서서 오줌을 깔기자, 그의 알궁둥이를 세차게 꼬집는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울어 대는 홍삼. 부엌에서 부지깽이를 들고 튀어나오는 홍연 모. 홍연, 재빨리 방으로 뛰어들어 방문을 닫으면, 문짝을 사이로 문고리를 잡아당기며 홍연과 실랑이하는 홍연 모. 문고리가 떨어져나가며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 홍연 모.

**홍연(Narr.)** 여덟 살이나 먹은 녀석이 마루에 서서 마당을 향해 오줌을 누는 것이 아닌가. 남자면 최곤가. 마루에 서서 오줌을 누어도 되나. 남자들은 보기 싫다. 정말 보기 싫다. 근데도 엄마는 아들이라고 동생 편만 든다. 아무튼 동생을 실컷 꼬집어서 울려 놓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하다…….

#### S# 66 홍연이네 뒷마당(낮)

싸리비를 높이 쳐든 홍연이 쫓아오자, 꼬꼬댁거리며 필사적으로 도망 다니는 ㉢수탉. 이를 발견한 홍연 모. 빨랫방망이를 치켜들고 홍연의 뒤를 쫓는다. 쫓고 쫓기며 마당을 맴도는 수탉, 홍연, 홍연 모.

**홍연(Narr.)** 우리 집 수탉은 꼴불견이다. 암탉이 알을 낳으면 제가 뒤편에 유별나게 큰소리로 꼬꼬댁 꼬꼬 -활개를 치고 야단이다. 미워 죽겠다…….

#### 37.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점]

- ① ‘홍연’은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수하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다.
- ② ‘홍연 모’는 홍연이 수하를 짝사랑하는 것을 잘 모른다.
- ③ ‘수하’는 홍연을 짝사랑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있다.
- ④ ‘홍일, 홍삼’은 순박한 시골아이들이다.

#### 3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점]

<보기>

- ㄱ. 연극 공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ㄴ. 시간이 경과할수록 두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ㄷ.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ㄹ. 행동이나 대사를 통해 주인공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 ③ ㄷ, ㄹ | ④ ㄴ, ㄹ |

#### 39. ㉠~㉣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2점]

- |     |     |
|-----|-----|
| ① ㉠ | ② ㉡ |
| ③ ㉢ | ④ ㉣ |

#### 40. ‘S# 66’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할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누워서 침 뱉기
- ② 방귀 똥 놀이 성낸다
- ③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한다
- ④ 종로에서 똥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

<끝>